

서울 주보

제2601호
2026년 2월 22일(가해)

사순 제1주일



입당송 | 시편 91(90), 15, 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 창세 2, 7-9; 3, 1-7

화답송 | 시편 51(50), 3-4, 5-6, 7, 12-13, 14와 17(© 3기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

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2독서 | 로마 5, 12-19(또는 5, 12, 17-19)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마태 4, 1-11

영성체송 | 마태 4, 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김태훈 리푸조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오늘 복음의 유혹 사회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먼저 유혹자는 빵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빵은 음식, 집, 돈, 직업, 건강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빵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삶을 위한 물질적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유혹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물리적 생명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악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 밑으로 몸을 던져 보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니, 곧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어디 한번 보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때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부른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징표 없이도, 심지어 시련이 있다 해

도 그분의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 참된 자녀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40)라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데 머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자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합니다. 악마는 무척 영리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힘과 지배라는 세상과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존중이라는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하십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참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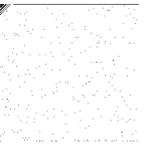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유혹까지도 똑같이 받으신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이 특별한 때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그림 해설

이마 위의 재 | 사람이 흙에서 났고, 저도 흙에서 났는데, 흙으로부터의 흔적이 저의 어디에 남아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죽으면 흙이나 재가 되어,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보진 않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로써도 천둥같은 메아리를 지어내던 날, 살면서 여태껏 이뤄 보지 못했던 자존과 겸손의 균형이 이마 위에 얹힌 재의 무게로 비로소 균형을 잡습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현미 소화 데레사 | 가수

첫 번째 대녀를 하늘 나라로 보내고 시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작년 5월에 제게 두 번째 대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보다 세 살 어린 동생인데, 대모와 대녀 사이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라면 매주 주일미사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미사 예식이 어찌나 복잡하고 어렵던지요. 그때, 함께 미사드리는 분이 있으면 안심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분이 일어설 때 일어나고 그분이 앉을 때 앉으면 되니까요. 저의 대녀 역시 처음에는 예식을 잘 몰라서 저를 따라 하느라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은 저보다도 더 미사에 집중을 잘합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뿌듯하고 대견한지 매주 주일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그날도 대녀와 함께 교중 미사를 드리고 차 한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다 내가 세례받게 되었나 했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자매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불러 주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언니를 부르신 거 같아. 나를 통해서 언니가 올 거 같으니까 나를 세례받게 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만 아니었으면 아마 펄펄 울었을 겁니다. 코끝이 시리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저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서 떠나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녀를 통해 저를 더 가까이 부르셨던 것이죠.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서

지금껏 청하는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도 다 헤아려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말하지 못하는 저 같이 애매한 사람한테는 참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찌면 제가 간절하기 전에 이루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챙겨 주셨습니다. 대녀를 통해 저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제가 미사 중에 가장 절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셨으니, 앞으로도 미사 중에 주님을 제 안에 가까이 모시고 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컷 묵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 4.10)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영성심리 | 올해 서울주보는 청소년 특집 중 하나로 영성심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도 청년,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영적 조언을 전해 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 첫 번째 이야기



김정미 아나마수녀 | 톡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오래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 감정들을 재미있는 캐릭터로 형상화한 덕분에, 모호하기만 했던 감정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녀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타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다양한 감정들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감정 캐릭터는 단연 ‘기쁨’이 일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생기발랄한 이 캐릭터는 주변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지요.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기쁨’이 이 감정 컨트롤 타워에서 훌륭한 리더처럼 보입니다. 종종 ‘버럭이’와 ‘까칠이’, ‘소심이’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슬픔’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마다 모두 회색빛으로 변하며 우울함에 빠져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갈등은 이제 ‘기쁨’이 ‘슬픔’에게 결코 틈을 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할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게 될 때, 분노라는 감정이 방해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계속 외면하

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지거나 다루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큰 몸집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폭풍처럼 되돌아오곤 합니다. ‘기쁨’이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슬픔 역시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감정들은 없애거나 부정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다만,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밀어내기를 멈추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비운 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강물엔 뿌연 흙탕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맑아지지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이렇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나는 그 흙탕물이 아니며, 흐르는 감정의 강을 지켜보는 더 온전하고 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감정’보다 ‘통합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려는 더 큰 나’를 만나게 해 주고, 결국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 ‘기쁨’이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K톨릭: 뮤지컬 | 서울주보는 2026년을 맞아 K톨릭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문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유하게 빛어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이중 K톨릭 뮤지컬은 복음의 빛으로 국내 창작 뮤지컬을 조명해 보는 코너입니다. 교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더 빛나는 뮤지컬을 즐겨보세요!

소란한 시대에 남겨진 말씀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연출 박한근 | 작·작사 김하진 | 작곡·음악감독 문혜성



김한솔 테레사 | 뮤지컬 작가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인물이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물은 일제 강점기에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작가로 살아가며, 연애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유를 기록합니다. 다른 인물은 1980년대, 거리의 폭력과 상실을 겪은 뒤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청년입니다. 이들은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권의 책 위에 남겨진 문장과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서로의 오늘과 내일을 건너갑니다.

이 작품에서 음악은 신스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대극에서 기대되는 어쿠스틱 사운드 대신, 전자음과 반복적인 리듬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장르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신스팝의 소리는 특정 시대에 고정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신앙의 시간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비트와 선율은, 인물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음을 음악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치 목주기도처럼, 같은 기도를 되뇌며 하루를 건너가는 리듬과도 닮아 있습니다.

작품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물들은 '결말'을 알게 됩니다. 실패로 기록된 역사, 사라진 이름들, 돌아오지 못

한 사람들. 그럼에도 이야기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았는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신앙이 언제나 요구해 온 용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보장받아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기에 끝내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언제나 부활을 말하지만, 동시에 성토요일의 침묵을 견디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을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속 인물들이 끝내 서로를 완전히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말과 선택이 다음 시간을 향해 남겨진다는 사실은 바로 이 성토요일의 신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란스러운 시대에도, 아니 오히려 소란스러운 시대 이기에 우리는 다시 책을 펼치고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그것이 이 작품이 세계 건넌 신앙의 초대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국 교회 신앙의 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특별면

다양한 특수 사목, 사도직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전해드리는 특별면입니다. 올해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 소속된 수도회의 수녀님들께서 다채로운 사도직 현장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하느님의 시간



김신애 세레나 수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갈바리의원 가정형 호스피스)

저는 수도회 사도직 안에서 많은 시간 임종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재도 강릉 ‘갈바리의원’에서 간호 수녀로 말기 암 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 60주년을 맞은 갈바리의원은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로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외래 진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있는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한 유형입니다.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곳이 적어, 호스피스 돌봄 자체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호스피스를 접하고, 가정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원하는 임종까지 맞는 분을 뵈 때면 ‘정말 복 받은 분이시다.’ 생각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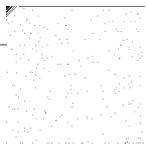
반면, 오랜 시간 임종 환자를 돌보다 보니, 식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임종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저의 많은 경험이 오히려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집에서 임종하신 70대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매사 꼼꼼하고 계획적이었던 그분은 영정 사진과 부고장, 사망 후 신고할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목주를 손에 쥐고 성모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사

용하는 방 침대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아 하느님께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라고 물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 속을 사는 그분께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원하는 답을 드려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느님의 영역이고, 적지 않은 진통제와 출혈, 섬망 등으로 잦은 응급 상황을 맞을 수 있기에, 집에서 임종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저도 모르지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꺼낸 그분의 질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에 부인에게 응급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섬망도 심해지고, 소변을 못 봐 힘들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원하자고 할까...’ 고민하며 방문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방에서 임종을 맞고 싶었던 환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모님,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침대에서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모송이 저절로 바쳐졌습니다. 다음날, 환자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느님의 시간에, 자신의 침대에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방에서 손에 쥐고 있던 목주를 징검다리 삼아, 편히 주무시면서, 그분의 간절함 대로 떠나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고인의 몸을 닦고, 평상시 즐겨 입던 옷으로 갈아입혀 드린 후, 조용히 연도를 바쳤습니다. 모든 임종의 순간, 어머니의 마음을 닮고자 하는, 성모님의 동반자로서 하느님의 시간에 초대받았음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 6,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든 가정과 공동체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맞아,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여정에 들어섭니다. 사순은 단순히 새로운 의무를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복음의 빛 안에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식별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한가운데서 복음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적·지역적 사회 환경과 세대 차이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견디는 듯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피로와 외로움, 불안과 상실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갈라 6,2)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따르도록 초대받은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다른 이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 안에서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사순 시기는 바로 이 사랑의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신 몸에 지니신 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안의 짐과 상처 또한 그저 의미 없는 무게가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번 사순을 보내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서로의 짐에 더욱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판단보다 ‘경청’으로, 무관심보다 ‘동반’으로 다가가며, 서로 다른 처지와 생각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

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언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동반의 태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반의 길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향해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기도로 나누며, 이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공동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우리의 삶 안에서 더욱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기도와 단식,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을 단순하게 가꾸고 정화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성제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다시 일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파견하는 은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우리는, 사순을 통해 다시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남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 더 깊이 화해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 정순택

소식

웅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웅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목사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웅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문의: 02)727-2525 웅기장학회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76713, 우리은행 454-037208-13-001, 신한은행 140-008-715396, 농협 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0년 3월 1일 김옥균 바오로 주교(85세)
- 2020년 2월 25일 최현묵 마태오 신부(40세)
- 2023년 2월 24일 브레넌 토마스 호반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76세)

교구청 일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사진으로 표현하는 말씀 묵상전: 1, 2전시실
 김창현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 20일(금)~3월 1일(주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집전: 감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
 때, 곳: 3월 5일(목) 오후 2시~3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2026 오경 3월 특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없음, 성경 자습) / 강사: 조창수 신부
 내용: 신명기 역사서와 오경 특강
 때, 곳: 3월 6일(금)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206스페인산티아고도보순례 피망: 9월 3일~17일(평일) /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키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서울성모병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 1)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3월 9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1
-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3월 10일(화) 13시30분~16시30분,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 3)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년 신자를 위한, '해들넷 피망'**
 대상: 중년기 의미를 찾고자 하는 40세 이상의 신자
 때: 3월 28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 회비: 2만원
 곳: 전교가르멜 피망의 집(사직동) / 문의(신청): 02)727-2354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13월 모임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 회비 없음
 주제: 기도입문 & 찬양과 함께하는 사순 피정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때, 곳: 3월 3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서울대교구 청소년교 유아부

- 1)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작은 성인의 첫걸음-기질로 만나는 우리 아이 부모의 길 / 강사: 최형선(숙명여자대학교)
 때, 곳: 3월 13일(금) 9시50분~13시, 교구청본관 501호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2월 23일(월) 오전 10시~3월 6일(금) 오후 4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교 유아부
- 2)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례식**
 대상: 주소지 서울, 2020년생 이후의 자녀가 있는 부모(신청 50명) /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신청: 2월 23일(월) 오전 10시~3월 13일(금) 오후 4시
 때: 온라인 예비신자 교리 4월 1일(수)~9월 30일(수)
 유아부 담당 신부 면담(4회 예정) / 세례식(10월 17일(토))
 문의: 02)727-2111 서울대교구 청소년교 유아부

환경사목위원회

- 1) 제59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새만금 수라갯벌과 신공항'
 때, 곳: 2월 2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사: 오동필 단장, 최재홍 변호사
 문의(신청): 02)727-2283, 2278(<http://eco.catholic.or.kr>)
- 2) 하늘땅물벗 생태탐방**
 대상: 하늘땅물벗 회원(가족, 비회원 참여 환영)
 내용: 삼척우체국(기후미사), 맹방해변 기후순례, 피케팅 등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때: 3월 25일(수) 8시30분(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곳: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 마감: 2월 25일(수)
- 3) 2026년 사순시기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바치시다**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은 생태적으로 파괴되어 고통을 받는 생태계 현실을 묵상하고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생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생태적 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PDF 파일 무상 배포(<http://eco.catholic.or.kr>)
 소책자: 권당 5백원 보급 /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시복시성 기원미사와 도보순례 접수 안내

- 1) 시복시성 기원미사(21회)**
 때, 곳: 2월 24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 2)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신청: 2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자세한 순례코스 및 안내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일시	코스	비고
3월 3일(화)	1코스 말씀의 길(명동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3월 7일(토)	2코스 생명의 길(가회동성당~중림동 약현성당)	
3월 14일(토)	3-1코스 일치의 길(당고개 순교성지~절두산 순교성지)	
3월 25일(수)	저녁뿔 순례길(701코스)	저녁 7시 시작
3월 28일(토)	3-2코스 일치의 길(노고산 성지~삼선산성지)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2026년 상반기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학교명: 노르드 견기학교 기초반·실현반, 글씨학교, 성경 봉독학교, 대화학교, 바오로학교, 인생학교
 교육기간: 3월 9일부터(학교별 상이) / 02)727-2385, 6 사목구 노인사목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행사안내

내용: WYD 수퍼클래스 / 강사: 조동원 신부
 주제: 신앙과 과학의 충돌? 또는 조화?(교의신학)
 때, 곳: 3월 7일(토) 16시~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 문의: 02)2230-2022

전례학교

대상: 전례봉사자, 전례분과위원
 때, 곳: 3월 19일~4월 23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5주) / 문의: 02)727-2066 사목구 교육지원팀
 회비: 4만원(신청 200명 / 3월 12일 접수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사목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1) 영성심리카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김해선), 마음챙김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최현정),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윤계연), 해금(경겨운), 뮤지컬(이슬), 이탈리아어(류재미), 붓질-생명을 깨우다(김현정), 영적식별(박일 신부)

2) 가톨릭상담아카데미

내용: 가톨릭상담(박현민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가톨릭영성심리(최지연 수녀), 가톨릭 윤리(손호빈 신부), 마음의 힘 키우기(홍성남 신부), 영적돌봄(장정민 신부), 가톨릭교의(박준양 신부) 외.
 때: (화) 오후 2시~4시(총 20주) / 회비: 한학기 10만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 2일(월)~26일(목)까지 / 3개월 수업(0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http://www.casm.co.kr>)

분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민족화해위원회

1) 2026 화해·평화학교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4일~4월 1일 매주(수) 19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203호(총57강) / 문의: 02)753-0815, 010-4682-2412(문자)
 회비: 일반 7만원, 수도자·청년 5만원(명하기행 별도)

강	일시	내용
1강	3월 4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영성 / 정수용 신부
2강	3월 11일	미술의 변화로 보는 북한 사회 / 박계리 교수
선택	3월 14일~15일	길에서 만나는 한반도 평화 / 정수용 신부
3강	3월 18일	세계질서의 대이행기 / 백준기 교수
4강	3월 25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김성경 교수
5강	4월 1일	분단을 넘어서는 실천적 사주로서의 평화 / 문이영 대표
수료	4월 8일	수료미사

2) 2026평화의 바람 기행(5기) 참가자 모집

대상: 도보순례가능한 누구나 40명 / 회비: 7만원
 때, 곳: 3월 14일(토)~15일(주일), 파주·연천 접경지역(1박2일)
 문의: 02)753-0815 / 문자신청: 010-4682-2412(폼발송)

3) 150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2월 24일(화) 19시, 명동대성당(함흥교구 흥남 본당)

4)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2월 27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추최, 황성)
 성경완독: 3월 6일(금)~14일(토), 4월 17일(금)~25일(토)

2026년 DMZ 평화의 길(도보 순례)
 대상: 초3 이상 누구나(80명) / 회비: 8만원, 15만원
 때: 2박 4일 10일(금)~12일(주일), 1박 5월 2일(토)~3일(주일)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때, 곳: 매월 마지막주(토) 14시~(주일) 14시, 초정성령회관 /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1박2일(3식) 셔틀버스 운행(조차일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순교성지 새남터 사순 일일 피정
 때: 3월 7일(토) 10시~15시(순교기념일 미사 포함)
 곳: 새남터성당 2층 대성전 / 강사: 황인수 신부(성바오로수도회),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회비: 1만원(중식 제공) / 3월 5일(목)까지 접수
 문의(접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특화된 프로그램)
 때: 4월 28일~30일·5월 23일~25일·10월 22일~24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추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사순 40일 기도회
 때, 곳: 2월 18일~4월 4일 매일 18시~22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천주교 성령봉사회관 하차
 미사(21시), 고해성사, 십자가의길, 찬미, 율동, 기도회 / 문의: 02)867-7900, 010-5259-8234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 피정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이사 40,31)
 때, 곳: 2월 28일(토) 10시~3월 1일(주일) 18시(무박),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 회비: 6만원(숙박시 8만원)
 카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ruah.fiat
 문의: 010-7445-6929 청년성령쇄신봉사회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담담: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2월 24일 이상기 회장 3월 3일 김현우 신부

예수회 말씀의 집 영신수련 피정(식별·선택)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 집
 8일 3월 10일~19일, 4월 10일~19일, 5월 1일~10일
 단기 3월 8일(1일), 4월 2일~5일(성삼일)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피정비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 center.jesuit.kr

수요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6월 피정 24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문의(접수): 02)3276-7733
토요	3월 14일, 4월 11일, 5월 9일, 6월 피정 13일 10시~15시30분(15시 미사)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 20일~23일·4월 17일~20일·5월 15일~18일·6월 19일~22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2월 27일~3월 1일·3월 27일~29일·5월 9일~11일·5월 15일~17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5월 29일~6월 1일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 사순시기 성지·자연순례 ① 추자도 순례 3월 1일~4일·3월 12일~14일·3월 29일~31일, ② 차귀도 섬 순례 3월 7일~9일·3월 16일~18일·3월 26일~28일, 엠마오 떠나는 4월 자연 순례 4월 6일~8일·4월 7일~9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워크숍 수강생 모집 영화 치유 미사
 1) 가톨릭영화인협회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때: 4월 10일(금)~22일(수) / 문의: 02)778-8565
 2)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4일~6월 20일 매주(수) 18시30분~21시(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3) 2월 영화 치유 미사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 / 사진 접수·회비 없음
 때, 곳: 2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가정선교회 3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40분,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3월 4일(수) /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3월 7일(토) / 이상국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3월 21일(토) / 한상우 신부

하부내포·서짓골·오우라 / 문의: 010-3807-1784

4월 18일(토)	서짓골·도양골·삼터(미사)	출발: 7시, 가톨릭
5월 16일(토)	신지도(새만금)-산막골(미사)-불무골-지석리	회관 후문(명동) 회비: 1인 6만원
3월 14일 ~18일	일본 나가사키 / 이스타항공	신도발견의 날 기념미사 참석-고포(오도)

성지순례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전례·탐방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4월 24일~26일	춘천 15곳-성내동성당	출발: 가톨릭회관
5월 1일~4일	부산 8곳, 마산 6곳	후문(명동)
5월 18일~20일	대구 17곳	
6월 5일~6일	백령도 / 성 김대건 신부님 불잡하신 날	
6월 27일~30일	제주도 / 차귀도, 추자도(야외 미사)	

예수고년회 서울 명성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제) 3월 6일 10시~15시30분
사순 피정	3월 19일(목) 10시~16시
치유침묵기도 피정	3월 20일(금)~22일(주일)
대침묵 피정	4월 24일(금)~26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고상·성모상·목주 만들기(가톨릭공예)
 CWC(가톨릭공예) 네이버 검색 / 문의: 010-5234-5044

어른 초등중학, 영어, 종이접기(한국여성생활연구원)
 학력인정 초등·중학, 영어, 종이접기 / 문의: 02)727-2471

ICPE-청년 제자훈련(1년 과정)
 대상: 청장년 / 문의: 010-5646-6594
 때, 곳: OT 3월 14일 15시, ICPE센터(합정)

이른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3월 5일~5월 7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추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새천년복음화학교 3월 영성교육·미사
 내용: 토빛기 / 미사: 조성풍 신부
 때: 3월 8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명동대성당 성서사실주간 수강생 모집
 강사: 영원한 도음의 성모 수도회 수녀 / 회비: 8만원
 때: 3월 10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40주간)
 문의: 010-5114-7196 (문자) 명동대성당 가톨릭성서모임

베네딕도로부터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제: 베네딕도와 환대의 영성 / 회비: 1만원
 때, 곳: 3월 7일(토) 14시~17시, 성분도 은혜의 뜰(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추최) / 문의(접수): 02)318-24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추가모집: 3월 31일(화)까지 원서접수
 문의: 02)745-8339(ci.catholic.or.kr)

예수회 금요기도학교
 체계적 기도강의, 기초부터 따라하는 기도실습
 정기적 침묵 피정 / 회비: 학기당 15만원
 때: 3월~6월 매주(금) 오전 10시~13시(주회, 학기제)
 곳: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전진상영성센터 '자아의 통합과 영성' 불학기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영성의 통합을 돕는 심리영성 통합강의(대면 강의·동영상 강의)
 치유적 강의 후 소그룹 훈련
 때: 3월 12일~6월 18일 매주(목) 10시~13시(총14주)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기도하며 기도를 배움시다' 성체조배 불 영성학교
 때: 3월 18일~4월 15일 매주(수) 14시~16시
 곳: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18일	박원주 신부	3월 25일	이기양 신부
4월 1일	정재건 신부	4월 8일	임병헌 신부
4월 15일	'성체조배 이렇게 해보세요' 강의-교구 회장, 파견 미사-대표 담당 사제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I(한국CLC)
 때: 3월 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4주)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청년 할인
 곳: 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 문의: 02)2135-9398

1강(3월 5일)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주원준
2강(3월 12일)	청년은 교회 어디에 서있나?	변미리
3강(3월 19일)	삶의 자리에서 순례자로 살기	정희완 신부
4강(3월 26일)	인문학은 어떻게 신앙과 만나는가?	김경집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분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책: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울대교구 가톨릭다도회 봄학기 회원 모집

때: 금요일 오전반 3월 6일부터 10시30분~12시30분(13주간) / 문의: 010-3707-5712, 010-6618-1313
 곳: 인사동 교육장 / 생활 다례와 예절 교육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1) '영신수련 맛들이기' 기도실습 10주 강좌
 강사: 정규환 신부
 때: 3월 9일부터 매주(월) 13시30분~16시
 2) '음악, 기도가 되다' 성음악 감상
 때: 3월~7월 매월 둘째주(토) 14시~16시 / 강사: 이보나

2026년 1학기 영성·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회비: 각12만원 /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계좌: 국민 031-601-04-092291 (제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47-8501(내선 2번)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무과
 1) 영성 강좌 '렉시오비바의 원리와 실제' 수강생 모집
 때: 3월 9일~6월 8일 매주(월) 15시50분~17시30분
 강사: 이영근 신부(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2) 교양 강좌 '라틴어'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목) 15시50분~17시30분
 강사: 윤종국 신부(서울대교구)

바로로 교육관 2026년 상반기 강좌

때: 3월 첫째주 개강, 10시~12시·13시30분~15시30분 / 회비: 오전반 8만원, 오후반 12만원(총12강)
 곳: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뒤편 / 010-4229-7894
 계좌: 우리 1005-002-675612 (계)센렐수도원 (입금 후 문자)

(월) 오전	역사서 I	대면·비대면
(월) 오후	로사리오 신비를 읽다 I(고통의 신비)	대면
(화) 오전	바로로 서간-로마서	대면·비대면
(수) 오후	말씀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행복 여정 I	대면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가르멜 영성으로 기도를 배우고 싶은 교우
 개강: 3월 10일(화), 3월 11일(수), 3월 12일(목)
 주책: 전교가르멜수녀회 영성의 집(사직동) / 2년 과정

매월 2-4번째 (36기)	대면 (화) 오전반 10시	문의: 02)737-7764,
	대면 (화) 오후반 19시30분	010-5969-2989
	대면 (목) 오전반 10시	문의: 02)737-7764,
	비대면 (수) Zoom반 20시	010-4495-7764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영성수업

때, 곳: 3월~6월, 서초동 / 사제 지도
 문의: 02)2258-8983 / 카카오톡 채널

예언서와 예언자들	(수) 19시30분~21시	영어가능자/온라인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	(목) 11시15분~12시30분	영어가능자 온·오프라인
목요 기도학교	오전 (목) 11시20분 오후 (목) 19시30분	성인 온·오프라인
가톨릭 교회 교리	(화) 11시20분~12시30분	성인/온·오프라인
신앙의 재발견	(화) 19시30분~20시30분	청년 / 온라인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영성, 교리, 신학 강좌와 수련 8강 / 비대면 온라인
 담당: 권효섭 신부(이나시오영성연구소) / 02)3276-7799

격주 화요일	14시~16시 / 개강: 3월 3일
격주 목요일	19시30분~21시30분 / 개강: 3월 5일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월1회 바로로선교회 장애인 미사 봉사
 연습: 매주(월) 19시, 약속역 근처 / 010-2686-0185

시스피나 시니어 합창 단원 모집(홍성)

그레고리오 성가와 전례성가 연주 및 봉사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010-9842-8818

서울대교구 오라시오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남녀 55세 이상 서울거주자
 때, 곳: 매주(금) 14시,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문의: 010-3249-9596(https://cafe.daum.net/ca-chorus)

2026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28일(토) 14시 / 대상: 1981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2075-4035 (문자)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사순 특강

때, 곳: 2월 27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곶벚나무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 미사

때: 3월 7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2월 27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2월 23일(월)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성바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3월 9일(월)~11일(수) 11시, 본원(미아동)
 영성강의와 미사 / 문의: 010-8684-1360

첫토요일 신심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3월 7일(토) 9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 미사 / 문의: 02)727-2053

때, 곳: 2월 25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새사제 미사

때, 곳: 3월 6일(금) 오전 11시,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B3 콘솔레이션홀 / 집전: 2026년 새사제 미사 후 안수가 있습니다 / 문의: 02)3147-2402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2월 2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진슬기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황인환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가톨릭여성연합회 2월 정기월례회 / 문의: 02)778-7543

때, 곳: 2월 24일(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g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 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국가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사업 해당 기관
----------	-----------------------------------------------------------------------------

직원모집

평화상조 홍보인력 모집 / 문의: 1588-1774

대상: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신자
 자격: 홍보활동 경험자(본당 및 기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 3월 20일까지 우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 15층), 팩스(02-3474-9594), 방문

요셉의원(서울역 소재) 직원 모집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요셉의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668-8432
 병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후 지원서 접수 / 분야: 재무회계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원서 접수: 2월 19일~3월 4일 / 자세한 내용은 부서 홈페이지(www.kyocs.or.kr/ca)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02)553-7320, 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서울	010-8563-6875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3월 8일(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신간

죽음의 신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2만원

죽음, 하느님 앞에서
삶 전체가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

부활 신앙이 열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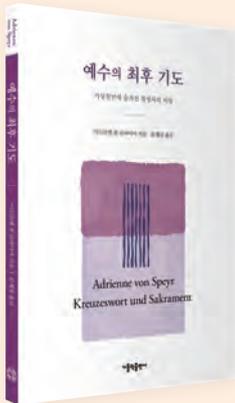
신간

침묵의 대화

토마스 키팅 지음 | 2만원

새 번역으로 만나는
토마스 키팅의 《침묵의 대화》

“침묵은 하느님의 첫 번째 언어다”
관상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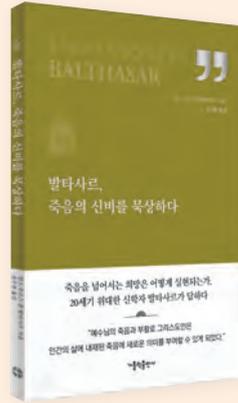
사순 시기 추천 도서

예수의 최후 기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1만3천원

십자가 위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가상철원의 비밀을 풀다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기 위해
성주간에 읽어야 할 필독서



사순 시기 추천 도서

발타사르,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만3천원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발타사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빛을 발견하다

허영엽 신부와 함께하는 2026 사순 특강

사순 시기, 성경의 흐름을 따라 걷다



강연 신청 하러 가기

일시 3월 21일 (토) 2시

장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안젤루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젤루스 주일학교는 첫영성체 이상 초,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대 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 20세~30세 천주교 신자
·활 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미사 전 교리 등
※문의 : mdsd.angelus@gmail.com

● 아미쿠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대 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40세 천주교 신자
·마감기한 : 2/22(일)까지
·활 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미사해설단 단원 모집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 20~45세 남녀 신자
·활동 : 평일 오후 6시, 오후 7시, 주일 미사 해설 및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회합이 가능한 분
·문의 및 신청 : 이메일 mdsdcommentator@naver.com 전화 010-2579-6939

● 가톨릭성서모임 수강생·그룹원 모집

① '성서사십주간'
·때 : 3/10(화)부터 매주 화 오전 10시
·곳 : 교구청본관 501호
·수 강 료 : 80,000원 ※QR신청



② '성경그룹공부'
·때 : 3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오전, 수 저녁, 주일반
·곳 : 범우관 교리실
·모집그룹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QR신청
·문 의 : ☎ 010-5114-7196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독서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되고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서 평일미사(오후6시, 7시)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교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월례 회합에 참석 가능한 자)
·서류 : 입단지원서(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와 교적증명서 이메일 제출
·마감 : 2/28(토)까지
·문의 : mdsdpmd@gmail.com
※오디션 및 인터뷰 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일시/장소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레자 또는 예비세레자(1년 이내 세레예정) 초 2~5학년 남아
·문의 및 지원 : https://naver.me/FoIjdKXc

● 명동 청년·3545+ 청년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 모집

·신청기간 : 2/7, 2/14 (18:30~20:10) 2/8, 2/15 (16:50~20:10)
·신청방법 : '성당마당 부스' 접수
·개설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모집대상 : 현재 20~45세 천주교 세례받은 청년
·상세내용 : 네이버카페(/ourbible 또는 /ourbible3545)
·기타문의 : 온라인 카페 내 '2026년 봄학기문의' 게시판 이용
·비고 : 개강미사 및 그룹원 OT ·봄학기 청년3545+미사 필수 참석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대 상 : 남녀 천주교 신자(1981년 이후 출생자)
·오디션 : 2/28(토) 14:0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오디션 곡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중에서 1곡 (※자유곡은 악보 2부 준비)
·접 수 : 2/26(목)까지 입단지원서(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와 교적증명서 이메일(catholicchoir@naver.com) 제출
·문 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동가톨릭합창단 검색

QR코드 스캔→



(가톨릭합창단 홈페이지)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총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민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 용기장학회 월례미사

용기장학회 월례미사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일시/장소 : 2/23(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진슬기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황인환 신부님
·문의 : 용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토 이사악(이사악)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24	봉헌 : 248, 510, 220	성체 : 127, 168, 163	파견 : 118
-------	----------	--------------------	--------------------	----------

◎ 2026년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3/ 9(월)	<세대 간 소통> “인생, 논나의 신앙 레시피” 장명숙 (안젤라메리치) - 밀라논나 -
3/16(월)	<교회 안에서의 소통> “명동살이 멧헿가요?” Fr.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 명동대성당 주임 -
3/23(월)	<가정 안에서의 소통> “사랑의 앙상블” 정석(에로니모), 고유경(헬레나) - 한국 ME대표 부부 -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잡지 인터뷰, 1986/5)
'하느님의 뜻'이 삶의 나침반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마중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 3.1 명동 민주구국선언 50주년 미사 》

- 일시 : 3월 1일(일) 오후 7시
- 주례 : 구요비 욕 총대리 주교

◎ 3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1호	나창식 (안드레아) 신부
주일반	오전 10:00	교구청 본관 402호	김 가브리엘 수녀

- 수요/주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3/1(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
- 첫수업 : 3/4(수) 19:30 교구청본관 501호, 3/8(일) 10: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 및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2026년 1분기 새 신자를 위한 후속교육

시간/장소 : 오후 7시 30분~9시 / 교구청본관 401호
교육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세례 받은 신자
신청방법 : 1주차 교육일에 강의 장소에서 현장 접수
(※1주차 이후도 접수 가능)

교육일정	교육주제
1주차 2/24(화)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 성사 -
2주차 3/ 3(화)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 전례 -
3주차 3/10(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 말씀과 기도 -

※본 교육 수료 후 7주간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자율선택)으로 이어지오니 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사제·수도자 지방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기도와 함께 성소후원회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사순 시기(2월 18일~4월 1일)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 명동교적신자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 십자가의 길 : 2월 27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2/1(일) 천사 모금액 11,110,000원
본당지원 1,111,000원
- 2월에 ‘헬렌켈러의집’, ‘성지보호작업장’, ‘신망애의집’에 천사의 사랑기금(12,221,000원)을 전달 예정입니다.
- 3/1(일)에도 무료급식 시설인 ‘쪽방촌 반찬나눔’, ‘청년 밥상 문간’, ‘청년의집’을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 2026년도 안젤루스 주일학교 등록안내

- 개학 미사 : 3월 7일(토) 18시 미사
- 등록 대상 : 명동 교적이 있거나, 명동대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 3학년~고 2학년 학생
- 등록 기간 : 2/1(일)~2/29(일) ◆ 등록비 : 10만원
- 등록 방법 : QR코드 접속, 신청서는 메일  mdsd.angelus@gmail.com로 접수
- ※등록인원 제한 있음. 문의사항은 상기 메일로 문의 요망

◎ 설연휴 휴무 관계로 2월 22일자 주보를 조기 마감하게 되어 2월 9일 ~ 2월 15일까지의 현금내역은 3월 1일자 주보에 공지합니다.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회림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평일미사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성지미사	화-금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토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